

함평천 2지구 공사 '부실'

완공 석달도 안돼 보도블럭 내려앉고 곳곳 토사 유실

10일 찾은 함평읍 기각리 일대 함평천 좌안제 구간. 지난해 12월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의 보도블럭이 30cm 정도 내려앉아 있고, 제방 곳곳에는 토사가 흘러 내린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이식한 일부 나무들은 자리를 못 잡고 잎이 말라 있고 화단에 페곤 크리트 및 보도블럭에 쓰고 남은 잔재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조성된 함평 2지구 하천정비공사 구간 곳곳에 지반침하 등이 나타나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발주한 '함평 2지구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4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함평읍 기각리부터 엄다면 화양리 일대에 축제장을 비롯해 ▲호안 8563m ▲교량공 1개소 ▲구조물공 15개소 등이 설치됐다.

하지만 준공 3개월 만에 보도블럭 지반침하하는 물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부실공사 흔적이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김모(함평읍)씨는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함평 2지구 하천공사'가 벌써 하자 발생해 미관에도 좋지않고 주변 곳곳에 페곤크리트 잔재들이 여기저기 정돈이 안된 채 방치되는 등 총체적 점검이 있어야 한다"며 "제방 일부에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증상들이 보여 안전점검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A건설사는 "공사를 동결기에 마무리 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민약 하자로 인해 보도블럭 등이 침하했다면



10일 함평읍 기각리 함평천 좌안제 일부 구간 보도블럭을 직접 측정된 결과 30cm가량 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바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진을 검토해보니 차량이 인도로 올라타서 보도블럭이 침하된 것 같다"며 "인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차량들이 주차해 그로 인해 물이 들어가 침하한 것 같다"

고 설명했다. 발주처인 익산청 관계자는 "일부 구간의 침하나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전남 서부권

군수는 선거법 위반 공무원은 뇌물수수 주민들은 감사 청구

신안군이 개청 이래 주민 감사청구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진행되고 각종 송사(訟事)가 이어지는 등 민선시대 이후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박우량 군수와 군의회 부의장 등이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이 속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감사원에 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공익감사가 예고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안군 '총체적 난국'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지역주민 1000여명이 집단으로 박 군수를 상대로 지난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군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비롯해 국·도비 읍·면 재배정 사업, 도서개발 사업 등 국비 일부가 편법으로 타용도 사업장에 전입됨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관 4명이 지난 7일 신안군에 대해 예비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원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공익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이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서개발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일부가 편법으로 타 용도 사업장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성 징계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안군은 박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속행되고 있으며, 군수 친동생인 박모(56·건설업)씨가 지역주민들에게 식사제공과 선물을 통한 친일임을 준 혐의로 오는 17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해남 '군민의 상' 후보 접수

해남군은 오는 28일까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민의 상' 및 군정발전 유공자 후보 추천을 받는다.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은 읍·면사무소 또는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접수하고, 추천대상 공적기간은 5년 이상이며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군은 해남군의 비전이 담긴 15차 내외의 짧고 간결한 내용으로 '행사 슬로건'도 공모하고 있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이메일(hsj641107@korea.kr)이나 우편(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팩스(530-5579), 전화(530-5236)로 응모하면 된다.

한편 '군민의 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9일 '제38회 해남 군민의 날' 행사장에서 열린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자저울로 '물김 무게 시비' 해결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 등 5개소 23대 설치

해남군은 물김 생산어민과 종매인간 물김 무게를 놓고 벌이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물김 위판용 전자저울'을 설치했다. 해남군은 어민들의 속원사업인 전

자저울을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산면 구성리, 송평리, 송지면 학가리, 어란리, 황산면 산소어촌계 등 5개면 5개소에 23대를 설치했다. 이번 전자저울 설치에 따라 그동안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60kg단위의 마대를 이용해 출하하던 것을 100kg마대로 작업을 해 일괄 측정함으로써 연간 10억여원의 생산비 절감효과와 함께 수산물 생산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남 송지면 어란 어촌계장은 "무게를 놓고 마찰이 잦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자저울로 불신해소는 물론 출하작업이 수월해지고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항만청 해상교통 관제 강화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이 운영하는 암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이하 관제센터)는 짙은 안개 등으로 인한 시계제한시 해상교통 관제를 강화한다.

관제센터는 침로를 예측할 수 없는 어선과 조종장능 제한상태의 어부선 등 해상안전에 취약한 선박을 특별 관리하고, 통항 선박에 대한 무중(霧中)항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제운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적절한 안전속력으로 항행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을 유도 ▲500m 미만의 시계 제한시 레이더와 VHF(초단파) 미탑재 선박 및 위험물 화물선(항도선 제외) 출항통제 등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적금 1900만원 예금 전환 수상해"

함평 우체국 직원 보이스피싱 사기 막아

함평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을 막아 농촌서민의 소중한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함평경찰에 따르면 함평우체국 직원 이모(37·여)씨는 지난 7일 주민

이모(65·여)씨가 체신청을 빙자한 전화를 받고 정기에금을 보통예금으로 전환시켜 19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 하려던 것을 이상하게 여겨 제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

다. 함평경찰은 9일 이씨가 근무하는 우체국을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함평경찰은 신중수법 등으로 활개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민·경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치중 서장은 "앞으로도 전화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주민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전 북

자동차·탄소·조선·LED·농기계·태양광·식품

'젊은 명장' 육성 본격화

(名匠)

道, 16개 학교 사업비 7억4200만원 지원

전북도는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해 '명장'(名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는 지난 8일 전라선업과 연계한 '명장 인력육성'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개 분야 16개 사업(사업비 7억4200만원)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학교를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삼례공고·장계공고·순창제일고·줄포 자동차고 ▲탄소=전주공고·김제고·진안공고 ▲조선=군산 기계공고·전북 기계공고·부안제일고 ▲LED=이리공고 ▲농기계=김제 자영고 ▲태양광=철보고 ▲식품=학산고·남원제일고·임실고 등이다.

전라선업과 연계한 유관기관 전문가와 대학교수, 교육청 장학관 등으로 구성된 공모 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조선, 탄소, LED, 태양광, 농기계, 식품 등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분야별 기능인력 양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우선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 전라선업 명장 인력육성 사업은 기능인력의 산실이라 볼 수 있는 특성화고에 '전북도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알리는 효과와 가능 명장을 양성해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내 18개 학교에서 22개 사업을 신청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김윤철기자 knews@



순창 단무지 무 계약재배 '탄력'

사조대립·협력업체, 희망농가 농지 답사

순창군이 사조산업 순창 장류공장에 이어 단무지 무 공급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사조대립(주) 마케팅실 최용재 팀장과 3개 협력업체 사장 등 8명이 협력업체에 납품할 단무지용 무 계약재배 추진을 위해 지난 9일 순창을 방문, 계약재배를 희망한 농가들의 농지를 답사하고 단무지 무 재배기술과 계약재배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최용재 팀장은 "순창 농가에서 단무지용 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를 답사하게 됐다"며 "구체적 협의를 거쳐 순창군 재배농가와 계약재배 추진을 결정한 후 2000여의 단무지용 무를 올해 수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조대립은 현재 국내 4개 협력업체를 통해 단무지를 납품받아 연간 1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위탁 운영

전북 테크노파크 선정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 단지의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선정하고 지난 9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탁기간은 올해 4월부터 3년간이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동북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국제 실증인증단지 육성 ▲산업화

실무체험형 인력양성 ▲산업단지 입주기업 조기 정착 ▲참여 연구기관을 연계한 연구개발(R&D)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백련리 일대 35만6000㎡ 부지에 1194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테마체험단지, 산업단지 등이 개발되며 본격 가동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60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연간 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새민금 합리적 행정경계 설정 촉구 결의

김제시와 부안군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새민금 일부 구간 결정에 반발해 공동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김제시 황산면 주민들이 지난 9일 새민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경계 설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단 신

정읍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정읍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지역최초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8월부터 1년간 동부화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4주이상 진단시 위로금도 20만원에서 40만~100만원까지 상향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군산 대형 스포츠대회 잇따라 개최

군산에서 굵직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2011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 C·D조(11개 팀) 총 25경기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월명야구장에서 치러진다. 또한 ▲제20회 금석배 전국 고

등학교 축구대회(18~29일) ▲제17회 JCI아시아 태평양 세네타 골프대회(20~22일)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등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대회들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남원보건소 치매관리 사업 확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올해 치매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남원 노인인구는 2만3609명으로 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고, 치매 유병률은 8.3% 정도인 1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록관리중인 환자는 376명이다. 시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세 이상 노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거쳐 치매 정밀검진을 할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 남원 노인요양병원과 진료협약을 통한 연계추진을 하고 있다. 문의(063-620-7955)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문강사 모집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한지문화 체험실 전문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한지공예 체험 ▲한지창의 체험 등 2개 분야로 강의계획서를 제안받아 새로운 체

험프로그램을 발굴, 반영할 계획이다. 선발된 강사는 다음달 1일부터 단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hisc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063-281-1553) /전북취재본부=김윤철기자 k0765@